

▣ 본문 감상

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.

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.

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.

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게 많이 묻었습니다.

짓다가 놓아 두고 짓다가 놓아 두고 한 까닭입니다.

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

이 없습니다.

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

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.

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.

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

다.

▣ 핵심 정리

- 갈래 : 자유시, 서정시 ■ 율격 : 내재율
- 성격 : 역설적, 여성적
- 구성
 - 1-2행 : 옷을 다 지음
 - 3-5행 : 수 놓는 것만 아니함
 - 6행 : 비밀을 아는 사람 없음
 - 7-8행 : 수 놓는 과정의 의미
 - 9행 : 영원한 미완성의 수 놓기
- 제재 : 수 놓기 ■ 주제 : 님을 기다리는 마음
- 출전 : <님의 침묵>(1926)

★ '수의 비밀'의 마지막 행의 역설적인 표현

"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(넣을)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.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,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."

⇒ 위에서 '작은 주머니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'이라는 표현은 모순된 표현입니다.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말처럼 주머니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. 만들고 싶으면 얼른 만들면 될 것 같은데, 오히려 만들고 싶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설적 표현입니다.

시인은 '수의 비밀'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수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짓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. 첫째,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고, 둘째, 두고 두고 완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. 왜 그는 수를 짓다가 놓아 두는 것인가 하면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그에게 수 놓기를 완결 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님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 것입니다. 그가 이 기다림 곧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한 수 놓기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게다가 설령 그가 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넣을 만한 '보물'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결핍의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의 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

▣ 이해와 감상

이 작품은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 시인의 상상력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님을 기다리는 과정의 중요함을 제시한 대표적인 작품이다.

이 시의 첫 3행에서 서정적 자아는 님의 옷을 다 지어 놓았다는 것과 아직 짓지 않은 것은 '작은 주머니'에 수 놓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서정적 자아에게 '수 놓기'는 님을 기다리는 한 방법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애정 표시의 객관적 상관물일 수 있다.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님을 위해 수를 놓고 있는 것이다. 여기서 수 놓기란 서정적 자아가 님을 찾아 가는 행위 곧 시인의 구도적 상상력의 활동 그 자체이다.

만하는 수 놓는 과정을 곧 자신이 시를 써 나가는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. '수 놓는 바늘'은 작은 주머니 위를 움직이며 자신의 사랑을 참을성 있게 완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 놓는 바늘은 님의 실상을 구현해 나가는 서정적 자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. 시인의 마음이 '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역동적인 완성의 과정이며, 이 과정이 '맑은 노래'와 같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.

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끝부분이다. 시인은 '수의 비밀'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수를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짓고 있는 것이다.

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첫째,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고, 둘째, 두고 두고 완성하고 싶다는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. 왜 그는 수를 짓다가 놓아 두는 것인가. 그것은 수를 놓으면서 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.

그는 수 놓기를 완결 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님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다. 그가 이 기다림 곧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한 수 놓기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. 게다가 설령 그가 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넣을 만한 '보물'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결핍의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의 기다림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.

결국 이 작품은 수 놓는 과정을 통하여 시인의 역동적 상상력과 님을 기다리는 '과정'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.